

겨울 맞아?...반팔 등장 '봄 같은 날씨'

낮 최고 20도...12월 기온 경신
따뜻한 남서풍 유입에 포근
슈퍼 엘니뇨 발달도 한몫
광주·전남 이번주 잇단 비 예고
평년 기온보다 5~10도 웃돌아

12월 초순임에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봄같은 날씨에 일부 시민들은 반팔 차림으로 공원을 거닐거나 운동을 하기도 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야 할 12월의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때아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은 20.3도를 기록했고 해남과 영암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1.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에 육박했다.

이날 광주(20.3도)와 보성(19.8도)은 12월 낮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따뜻한 날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평년 기온보다 5~10도 가량 높은 수준의 낮 최고기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 겨울에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가능성 크다는 기상청의 예측이 들어맞고 있다.

우선 올 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달해 해양온도의 변화가 겨울 고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엘니뇨가 진행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인 일본

동쪽으로 대기 하층에서 상층까지 고기압성 순환이 나타나면서 남풍류가 유입돼 겨울 기온이 높아진 것이다.

결국 상층의 고기압의 길을 내는 기압골이 남북 방향이 아닌 동서방향으로 놓였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봄같은 겨울에 내리는 비도 예사롭지 않다.

10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는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도 재차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전남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50mm로 예상되고 있고 전남 일부 해안 지역에는 30~80mm까지 내리겠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기상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를 보이고, 12일 아침최저기온은 8~11도, 낮 최고기온은 10~13도에 분포하겠

다. 하지만 16일부터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7일에는 전일대비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부터 해상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서해남부바깥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11일 오전부터 그 밖의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9~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면서 "11일부터 12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겨울날씨를 보인 1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나온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요구 거절한 택시기사 폭행 20대 징역형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좌회전을 요구했지만 기사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나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기사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사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궁이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50대 자매 중독...생명 지장 없어

아궁이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50대 자매가 중독됐다.

10일 구례소방에 따르면 전남 밤 10시 40분께 구례군 토지면의 한 주택에서 일산화탄소를 마신 50대 여성 A씨와 B씨가 잇따라 쓰러졌다.

A·B씨는 자매로, 이들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한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땀 불에서 나온 연기가 아궁이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흘러들어가 A·B씨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난 주택은 음식점과 주택을 겸하고 있는 구형 주택으로, 주택 내 별도의 환기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광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이 군수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관련자 8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척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8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2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을 소개 해줬을 뿐 대금을 대납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의 변호사비 대납 혐

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자들이 변호사 선임료 납부를 시작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징계 처분 유효"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 이사회의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지난 8일 황 회장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부상자회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사회는 황 회장이 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

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의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황 회장은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은 무효"라며 반발,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황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회장의 신청을 받아 들이기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멸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부상자회는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 맡길 방침이다.

황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